

③

해 보고 됩니다.

▶ 100인 기부 릴레이 완주줄

과정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역시 눈에 보이는 결과에 기뻐하게 되는 마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릴레이 완주는 어느 한 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분과 이کم이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강금실, 강지원, 고정일, 고정애, 김미화, 김병후, 김보성, 김성애, 김성주, 김수환, 김순진, 김형태, 김화중, 김효선, 문희, 박승진, 박영숙, 박옥희, 박완서, 박운정, 박혜숙, 변영선, 신숙희, 신창재, 심영섭, 심영희 안종길, 오한숙희, 왕인순, 유환숙, 윤우정, 이경순, 이기현, 이길여, 이상덕, 이상은, 이성재 이송철 이연숙, 이연주, 이유명호, 이철순, 이태수 이현숙, 이희호, 임혜선, 장홍순, 정광모, 정무성, 정진영, 정혜원, 조은희, 조현옥, 조종식, 조희진, 지은희, 진양혜, 최재천, 한영, 홍태희

□ Interview

'100인 기부 릴레이' 마무리 박영숙 여성재단 이사장



"뿌리 내리는 기부문화 뿌듯"

각계 2,200여명 참가 '열기', 불황 속 지난해보다 40%늘어 일반인들 동참도 두드러져 "여성지도자 육성 씨앗 필것"

"기부란 돈 많은 부자들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월급쟁이는 월급쟁이대로, 기업인은 기업인대로 함께 나눈다는 뜻이 중요한 거죠. 이런 점에서 어려운 경제상황에도 불구하고 기부 릴레이에 참여한 사람이 지난해보다 44%나 늘어난 것은 대단한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기부문화가 점차

튼튼한 기반을 갖추어 가고 있다는 뜻이겠지요."

한국여성재단의 박영숙(72·사진) 이사장은 지난달 31일 막을 내린 '딸들에게 희망을 주는 100인 기부 릴레이'의 성과를 이렇게 평가했다. 한국일보와 한국여성재단이 공동 주최한 이 행사는 100명의 사회저명인사 기부자들이 이کم이가 돼 5월1일 첫 기부를 한 뒤 릴레이식으로 매일 다음 기부자를 연결해 한 달간 총 3,100명의 기부를 유도하는 사업으로 올해가 2회째.

아직 최종 결과는 집계되지 않았지만 올해 기부릴레이 참가자는 2,200명 안팎으로 총 모금액은 1억 5천만원(물품 포함)을 훌쩍 넘길 것으로 보인다. 31명을 모두 채워 완주한 릴레이 줄은 60줄. 지난해에 비하면 완주율은 거의 2배로 높아졌고 참여자 수도 40% 이상 늘

④

어났다. 다만 평균 기부금은 떨어져 총 모금액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가수 이승철씨가 이끈 줄은 팬들의 적극적 참여로 무려 100명이 참여했고, 김수환 추기경, 소설가 박완서씨, 개그우먼 김미화씨, 배우 정진영씨, 가수 이상은씨, 방송인 진양혜씨 등이 모두 좋아하는 일반인 중심으로 기부를 완주했다.

첫 기부를 시작한 '이름이 주자'가 사회 저명인사로 구성되면 자연 유명인사 중심의 릴레이가 이뤄지게 마련인데 올해엔 핸드폰과 인터넷으로 결제한 일반인도 크게 늘어났다.

올해 기부금은 각 분야의 미래 여성지도자 양성을 위한 '새날기금'으로 조성돼 쓰인다.

"여성장애인의 법적 지위 향상을 위해 일하던 복지운동가 한 명이 있었어요. 법대 졸업생인데 공부를 더 하고 싶었지만 계속 운동만 해 왔으니 학비가 없어서 쫓겨났죠. 여성재단이 한 기업체를 연결해 장학금을 받도록 했습니다.

이제 이러한 분들을 새날기금으로 더욱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새날기금은 각 분야의 여성 인재를 키워내는 씨앗이 될 것입니다."

이번 기부 릴레이의 이름이 주자 중에 유독 여성 전문가 집단이 많았던 것도 여성문제를 근본적으로 풀기 위해선 미래의 여성리더를 키워야 한다는 데에 공감했기 때문이다. 여접사회, 여의사회, 여약사회, 21세기여성CEO연합 등은 각각의 릴레이 줄을 형성했고, 김금실 김화중 지은희 장판 등 여성 장판들도 이름이 주자를 자청하고 나섰다.

"기부의 의미에 공감하고 참여한 모든 분들과 한국일보에 감사드립니다. 개인적으로는 나 이 든 사람들의 기부보임을 만들어 볼까 합니다. 사실 제 나이쯤 되면 큰 돈이 필요 없어요. 제 생일이면 자식이 밥 한 끼 사는 셈치고 제 이름으로 기부금을 내놓는답니다. 인생을 마무리할 때 공익을 위해 유산을 남기는 것도 얼마나 의미 있는 일입니까."

한국일보 김희원기자 hee@hk.co.kr(2004/6/4)

□ SBS 러브FM 103.5 손숙·김범수 아름다운세상 "아름다운사람들"

라디오 인터뷰도 성공적 완주!

아름다운 청취자들과 함께 하는 손숙·김범수의 아름다운세상 "아름다운 사람들" 코너에서도 지난 한 달 간 열심히 100인 기부 릴레이를 이어 갔습니다.

각계에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름이 주자분들을 중심으로 일상적인 삶 속에서 실천하는 나눔, 여성문제에 대한 깊은 관심과 공감이 오고 간 이번 라디오인터뷰는 손숙, 김범수씨의 편안한 진행과 함께 아름다운 이야기를 만들어 냈습니다.

특히 여성재단의 모금위원이며 이름이 주자이시기도 한 손숙선생님의 릴레이는 같은 진행자 김범수씨로 이어져 지금 SBS아나운서들은 물론, KBS아나운서까지 참여해 쉼 없이 이어가고 있는데, 역시 말과 실천이 함께 하는 아름다운 사람들이셨습니다.

라디오인터뷰에 지난 한 달간 최선을 다해주신 SBS 러브FM 손숙·김범수씨의 아름다운세상을 만들어주신 프로듀서님과 작가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내년에도 "아름다운세상의 아름다운 사람들"로 다시 만나 여성과 나눔에 대한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함께 나눌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5

SBS 러브FM 103.5 손숙·김범수 아름다운세상 인터뷰 주자					
1주	이연숙 (16대유희의원/본 재단이사)	조홍식 (서울대학교수/본 재단배분위원장)	김미화 (개그우먼/본 재단 홍보대사)	장지현 (변호사)	이유명호 (남장한의원원장)
2주	지은희 (여성부장관)	최계원 (서울대학교수)	유민준 (서울문화재단대표)	조희진 (여집사회 회장)	이숙정 (줄바닛 대표)
3주	이길여 (가천길재단 회장/본 재단 이사)	오한숙희 (방송인/본 재단 기획홍보위원)	김순진 (주)늘부대표이사/21c여성CEO연합)	김정주 (성주더앤더 사장/본 재단 이사)	김병록 (김병후정신과 의사/본 재단모금위원)
4주	이기열 (최수케미칼 사장/본 재단모금위원)	이현숙 (여의사회 회장)	한영 (광주여성재단네트워킹 회장)	장명수 (한국일보 이사/본 재단 이사)	박영숙 (본 재단 이사장)

□ 100인 기부 릴레이 Episode

#Episode 실무자가 말하는 “내 릴레이 최고!”

릴레이를 어디서 끊어야 하는지, 여성재단은 요즘 고민 중입니다. 시간을 더 달라고, 완주하겠다고 하시는 릴레이주자들을 보며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이쯤이 주자 한 분에서 시작되었던 릴레이는 각각 30명의 친구들을 모아냈고, 그 안에 서로의 얼굴도 모르는 분들이 끼어있기도 합니다. 아직 통성명을 안했을 뿐, 어느새 여성재단의 친구로 사촌간이 된 분들,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렇게 맺은 인연, 끝없이 진실하게 이어가겠습니다.

100인 기부 릴레이의 매력은 각계각층 나눔을 실천하시는 많은 분들을 만나는 즐거움입니다. 끊어지지 않는 릴레이만큼 끊어지지 않는 이야기들로 풍성했던 100인 기부 릴레이, 이제는 100인 기부 릴레이의 완결판 “31일간의 소식지”를 통해 여러분과 만나겠습니다!

□ 100인 기부 릴레이 Neverending Story

모두의 참여로 가능했던 100인 기부 릴레이, 당신이 주인공이었습니다!

지난 5월 한 달간 명예로운 나눔의 주인공으로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인연의 끈을 놓지 않고, 앞으로도 여성재단의 친구로 여성재단에 끊임없는 관심과 조언, 지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뉴스

기부ABC

정보 플리자

기부서클

포럼

Ab

기부 ABC

기부 이해하기 FREE!

- 왜 기부하나?
- 기부의 종류
- 비영리단체와 기부
- 변화하는 기부
- 만족스러운 기부자

기부 플래닝하기

세제 혜택 FREE!

기부이해하기 | 기부의 종류

우리는 일상에서 '기부'라는 말을 어렵지 않게 들어볼 수 있다. 구세군 냄비에 동전을 넣거나 ARS를 통한 수기와 같은 행동들을 통해 누구나 한번쯤은 기부행위에 동참해 보았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남 일'이라고만 생각하는 기부는 기부자의 동기, 의도, 비전에 따라 몇 가지로 나뉘볼 수 있다. 나의 기부는 어디를 생각해 보자.

주는 행위(giving)



지하철 안에서나 길거리에서 걸인에게 적선해 본 적이 있거나 슈퍼마켓이나 은행 불우이웃 돕기 모금통에 거스름 돈을 넣어본 경험도 있을 것이다.

이 경우 베푸는 사람은 자신의 '돈'이 어디에 사용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생각 없이 돈이 유용하게 사용될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 속에 준다.

이 경우 자신의 돈이나 물품을 주는 사람이나 그것을 받는 사람 모두 그 행위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다.

'단순히 주는 행위'는 돕고자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유·무형의 자원이 일방향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가는 것을 말한다(transfer).

자선(charity)



전통적으로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기부형태다. 수재민을 위해 담요나 음식물을 제공한 다음 숙자를 위해 임시거처를 제공하기 위해 또는 소년소녀가장들에 대한 생활보조를 위해 기한다.

자선이란 말은 라틴어의 '사랑으로 주어진 기부(GIFT GIVEN OUT OF LOVE)'라는 말에서 유래했으며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간의 동정적이고 감정적 관계가 전제된다.

대중매체에서 소년소녀가장들의 눈물겨운 겨울나기 이야기를 접한다든지 추운 지하철에서 잠을 자는 노숙자를 보면서 또는 홍수로 인해 모든 것을 잃어버린 수재민들을 보며 우리는 마음깊이 애동정심을 갖는다. 그래서 자선은 자신보다 불행한 사람이나 위기에 처한 사람들의 당장의 필요한 욕구를 해결한다.

자선에서는 자신의 기부에 대한 어떠한 분명한 결과를 요구하기보다는 기부에 따른 뿌듯함과 수혜자들의 고요가 어느 정도 줄었을 것이라는 믿음이면 기부에 대한 보답으로 족하다.

자선적 기부는 주로 그 문제가 왜 발생했는가 하는 근본원인보다는 현재 요구되는 개인적 욕구와 필요에 초점을 둔다.

자 이제 다소 생소하지만 좀더 넓은 기부의 세계로 나가보자.

박애적 기부(philanthropy)



개개인의 문제 말고도 사회에는 빈곤문제, 환경문제, 아동학대문제, 노인문제, 차별 문제, 여성차별 문제 등 해결되지 않은 많은 문제가 존재한다.

박애적 기부는 개개인의 욕구가 아닌 좀더 넓고 좀더 공공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해 기부하는 것이다.

자선적 기부와 박애적 기부의 비교 예

예) 노숙자의 예

자선적 기부를 하는 기부자는 노숙자들에게 먹을 음식과 의복을 나눠주는 자선단체에 기부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노숙자들의 당장의 필요를 해결될 것을 기대한다.

박애적 기부자들은 노숙자들에게 지속적인 해결책을 주기 위해 직업훈련이나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예) 수재민의 예

자선적 기부는 수재민들에게 당장 필요한 음식과 담요를 제공하는 구호단체에 기부한다. 박애적 기부는 곤란한 수해대책을 정부에 요구하고 옹호하는 시민단체를 지원할지도 모른다.

박애적 기부는 현상유지가 아니라 정의롭지 못하고 불평등한 사회구조와 체계, 기관등의 변화를 지원한다. 따라서 불우한 개개인 욕구해결에 머물지 않고 좀 더 폭넓은 특정 사회적 문제 해결과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조직들에 기부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 박애적 기부는 현상유지가 아니라 정의롭지 못하고 불평등한 사회구조와 체계, 기관등의 변화를 지원해서 불우한 개개인 욕구해결에 머물지 않고 좀 더 폭넓은 특정 사회적 문제 해결과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 위한 다양한 조직들에 기부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 박애활동은 라틴어의 '깊은 인간애(love of humanity)'에서 나온 말로, 단순히 주는 행위나 자선과는 구면에서 차이가 있다. 박애적 기부자들은 자신의 기부의 결과로서 인간사회가 지속적이고 발전적으로 나아간다는 기대를 갖고 하는 투자이기 때문에 기부자의 비전, 세계에 대한 이해노력, 신념 등이 필요하다.
- '기부행위에 대한 결과'를 요구한다. 즉 박애적 기부활동은 기부행동의 결과물으로써 '분명한 변화에 대한 가치'와 행하는 계산된 투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박애활동은 구체적인 계획과 설계 후에 실행되는 것이다.
- 박애활동의 대상영역은 빈곤 문제와 같은 사회적 문제 해결에서부터 궁극적으로 인간 삶의 질 향상에 기부하는 행위까지를 포함한다. 따라서 박애적 기부는 연구활동, 보건, 예술, 교육, 문화, 장학사업보다 다양한 영역에 걸쳐 이루어질 수 있다.
- 단순한 기부, 자선과 박애활동을 분류하는 것은 돈의 크기가 아니라 기부하는 사람의 의도, 기대, 비전이다.

뉴스

기부ABC

정보 플리자

기부서클

포럼

Ab

기부 ABC

- 기부 이해하기 FREE!
- 기부 플래닝하기
- 세제 혜택 FREE!

세제 혜택

기부금의 종류에는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이 있다. 기부금의 종류에 따라 세제혜택에 차등이 있다. 기부주체에 따른 기부금공제한도는 다음과 같다.

개인이 기부하는 경우 공제한도

법정 기부금과 지정 기부금의 종

	근로소득인 경우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일 경우
법정기부금	전액면제	전액면제
지정기부금	전액공제기부금이 없는 경우 : 근로소득금액×10% 전액공제기부금이 있는 경우 : (근로소득금액 - 전액공제기부금)×10%	(소득금액 - 전액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년도에서 발생 중 미공제금액)의 5%

연습해보기 [click](#)

법인이 기부하는 경우 공제한도

법정기부금	당해사업연도 소득금액-이월 결손금
지정기부금	(당해사업연도 소득금액-법정기부금손금용인액-이월결손금) × 5%

유산상속과 세제혜택

상속세

- 피상속인의 유언 또는 상속인의 합의에 따라 상속받은 재산을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종교, 자선, 학술 기업에 출연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 출연재산에서 생기는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속인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귀속되는 경우 세된다.
- 귀속되는 재산가액과 출연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이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를 초과하는 경우 과하는 가액은 상속세가 과세된다.
- 피상속인의 유언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에 기부한 상속재산은 비과세되며, 또한 신고기한내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에 기부하는 상속재산도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증여세

- 상속세법이 정하는 공익사업 즉, 종교·자선·학술·기타의 공익사업이나 초·중등 및 고등교육법에서 정하는 운영하는 사업에 기부한 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 다만, 공익사업에 내국법인의 발행주식 또는 출자총액의 5%를 초과하여 기부하는 경우 초과부분은 과세된다.
- 단 재산을 출연받은 때에는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 내에 공익목적사업 등에 전부 사용하여야 한다.

공익사업에 기부한 재산이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가 과세된다.

- 상속인들이 합의하여 공익법인에 상속재산을 출연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중 1인이더라도 당해 공익법사가 되거나 이사의 선임·기타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출연가해서는 상속세가 과세된다.
- 출연재산을 공익목적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로서
 - 재산을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 안에 공익목적에 사용하지 않은 재산의 가액
 - 수익사업을 하면서 그 재산운용소득에서 법인세·주민세 및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금액의 70% 다음연도 중에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가액
 - 공익사업을 그만둔 때에 나머지 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공익사업과 비슷한 공익말기지 아니하기로 한 재산가액
 - 공익사업의 목적이 사회적지위·직업·근무처·출생지 등에 의하여 일부에게만 혜택을 주는 재산증여세가 과세된다.

☐ 공제 절차

기부금공제를 받고자 하는 근로소득자는 소득공제신고서를 제출할 때 서식에 의한 "기부금명세서"에 관련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급여액에서 일괄공제한 기부금에 기부금명세서를 제출하여도 된다. 기부금 관련 영수증에 대하여는 일정한 양식을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다음의 내용이 기재된 것이라야 한다.

1. 기부자의 성명
2. 기부금은 본인명의로 돼 있어야 한다. 이때 본인 명의로 증명을 해야 하기 때문에 기부를 할 때는 소득을 수 있는 사람 명의로 하는 것이 현명하다.
3. 기부금품의 가액 또는 수량(수량인 때는 금액을 기재)
4. 기부목적
5. 기부금 지급일
6. 발행자의 서명날인(법에 규정된 피기부자 명의 또는 등기된 분사무소 명의)

금융기관이 지정기부금대상 단체와 계약에 의하여 기부금 수납업무를 대리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이 기부수증을 발급할 수 있음. 다만, 대리 발급한 영수증에는 기부자와 기부받는 자의 인적사항, 기부일자, 기부금목적 등이 기재되어 기부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기부문화연구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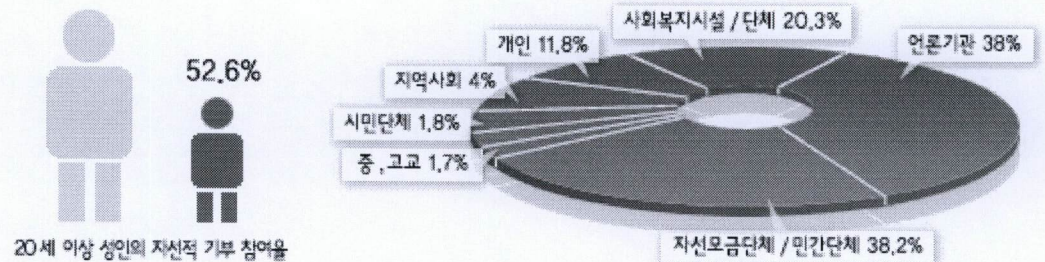
기빙 인덱스

- 기부문화연구소
- 기부문화연구사업
- 기빙인덱스
- 기부문화심포지움
- 기업사회공헌실태조사
- 기부문화총서
- 류우종기부문화도서관
- 기부정보
-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2001년 한국인의 기부 현주소는 ?

아름다운 재단이 한국인의 자선적 기부 지수를 알아보기 위해 지난 2001년 8월 실시한 '2001 한국인의 기부지수 : 유한킴벌리 기빙 인덱스'



이에 따르면, (*종교적 목적의 기부와 자선적 기부를 분리해서 실시)
20세 이상의 성인 2명 중 1명 꼴인 52.6%가 자선적 기부에 참여하였으며,
연 평균 51,775원을 기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인들이 기부하는 곳으로는 자선모금단체/민간재단(38.2%), 언론기관(38%),
사회복지시설이나 단체(20.3%), 개인(11.8%), 지역사회(4%), 시민단체(1.8%),
중고등학교(1.7%) 순으로 나타났다.

조사의 목적과 방법

조사의 목적

전국의 20세 이상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2001년 우리나라 국민의 기부와 자원봉사 실태 및 이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파악함으로써 올바른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나아가 우리나라의 기부활동 관련 정책방안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표본대상이 된 모집단이나 표본의 특성

표본 크기 : 1,021 명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만 20세 이상 성인 남녀)
표본 추출 방법 : 3단 층화 무작위 추출 *표본지점 Sampling은 인구비례확률추출법
(PPS : Proportionate Probability Sampling)의 원리에 따라
다단계 지역추출법 (Multi-Stage Area Sampling) 사용
표본 오차 : $\pm 3.1\%P$ (95% 신뢰수준)

자료수집방법

조사 방법: 면접원의 가구방문에 의한 1:1 개별면접조사 (자기 기입식 병행)

자료 수집 도구: 구조화된 질문지 (Structured Questionnaire)

조사 기간: 2002년 8월 20일 - 8월 30일 (10일간)

조사 의뢰 기관: 아름다운 재단

조사 실시 기관: 한국 갤럽

표본의 크기별 표본오차 예시 - 95% 신뢰 수준

주요조사 결과 및 분석

1. 한해 동안 얼마나 기부했나? 2001년 한해 1인당 평균 10만원 기부

조사결과, 지난 2001년 한 해 전 국민의 52.6%가 자선적 기부경험이 있으며, 평생 동안 자원봉사 참여 시간은 42.9 시간, 2001년 한국인의 평균적인 자원봉사 시간은 5.81시간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 1,021명 가운데 490명의 응답자가 644건의 기부를 했으며 2001년 한해 동안 기부경험이 있는 개인별 총 기부금액은 108,110원으로 지난 해 98,660원에 비해 9.5%가 늘어난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체 기부자의 23.6%는 9,000원 이하의 소액 기부자였으며 100만원 이상의 고액 기부자는 3.7%였다.

2. 얼마나 자주 기부했나? 아직은 비정기적 기부가 압도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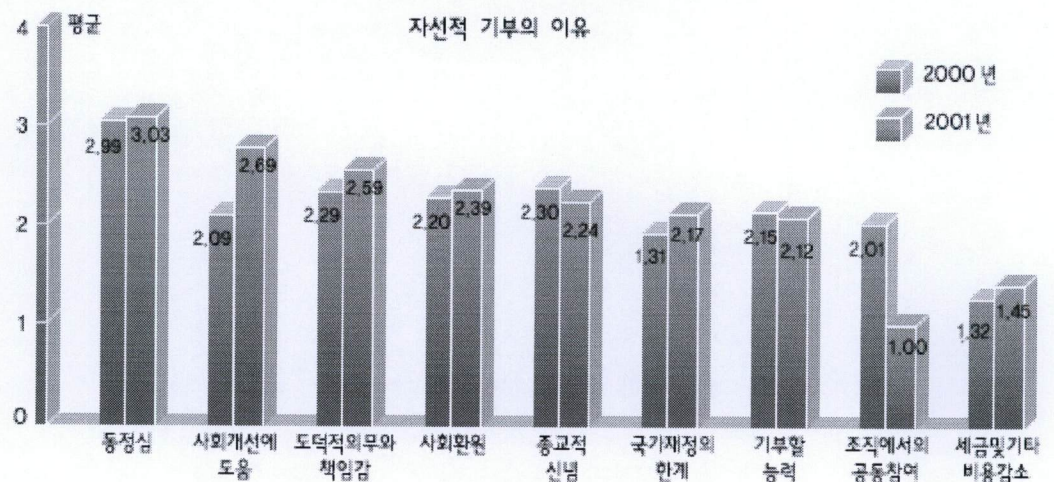
응답자들의 약 81.8%가 비정기적으로 기부를 하고 있으며 정기적인 기부자는 18.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와 비교해 보면, 정기적인 기부자의 비율 16.3%에서 18.2%로 약간 늘어난 것으로 이러한 사실은 안정적인 재정지원을 추구하고

민간의 자선적 기부금을 재정적인 원천으로 기대하는 사회복지단체 및 자선기관 그리고 공익적인 시민사회단체의 입장에서는 정기적인 후원자를 확보하는 전략이 민간자원동원의 장기적인 과제임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3. 기부의 동기는 "불쌍하고 어려운 이웃을 돕고 싶어서"가 압도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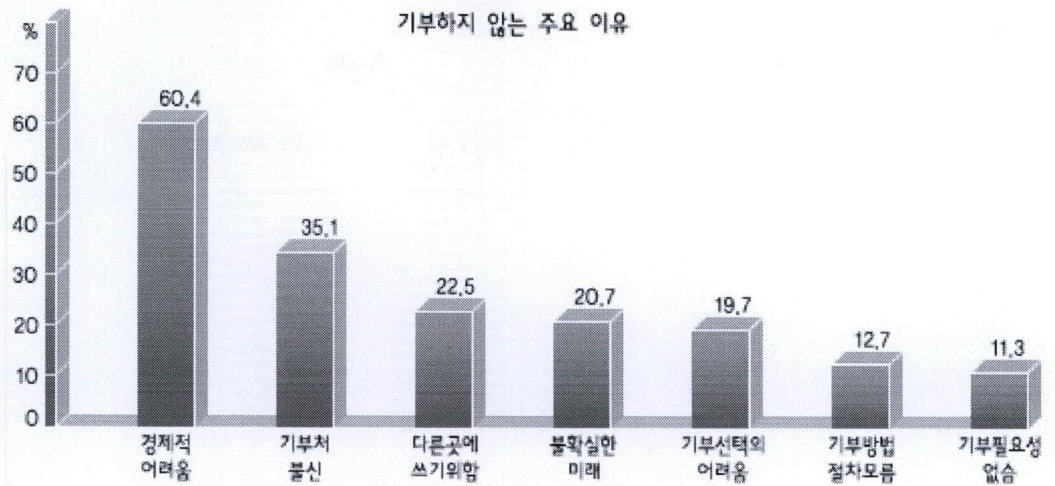
기부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어렵고 불쌍한 사람들에 대한 동정심(61.9%)이 작년 이어 1위로 나타났다.(4점 만점 중 3.03으로 긍정비율 높은 편) 이 외 사회개선에 도움(2.63점 / 30.4%), 도덕적 의무와 책임감(2.53점 / 28.0%),

사회 환원(2.39점 / 18.4%), 종교적 신념(2.24점 / 26.3%)순이었으며 세금 및 기타비용 감소목적은(1.45점) 1.0%로 응답자들의 동의정도가 낮은 편이었다.



4. 기부하지 않은 이유-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기부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484명에게 기부를 하지 않는 이유를 물었을 때 1위는 자신들의 경제적 어려움 때문 2위는 기부기관에 대한 불신, 5위는 기부처 선택의 어려움의 순서로 나타났다.



5. 어떤 방식으로 기부했는가? ARS전화 이용을 가장 선호

한국인이 가장 선호하는 참여하는 방법은 ARS 전화를 이용하는 방법(42.1%), 직접 전달(22.2%), 지로용지 사용(13.8%), 학교나 직장 등 단체를 통해(11%) 순으로 나타났으며 자동이체(5.4%)나 가두모금(4.5%)에 참여하는 사람의 비율은 5%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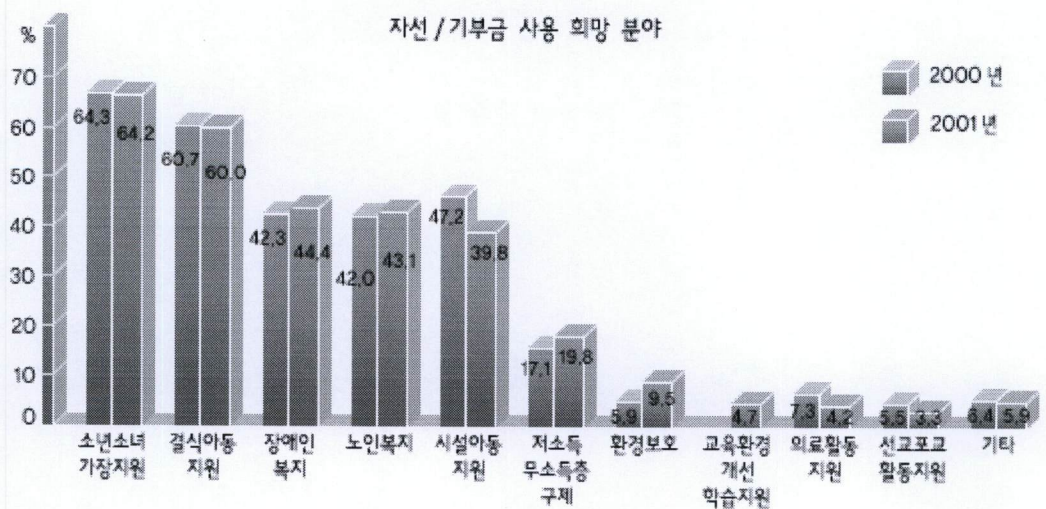
그밖에 자선 이벤트, 바자회 등 자선모금행사 참여(0.8%), 신용카드 포인트 전환(0.2%) 등도 작은 점유율을 보였다.

6. 어떤 곳에 기부했나? 자선모금단체, 민간재단과 언론기관 선호

지난 한 해동안 자선적 기부를 한 시설, 기관, 그리고 단체를 묻는 질문에 대해 (중복응답 포함) 전체 490사례가 보고 분석되었으며, 이 중 가장 빈도수가 높은 기부처로 지목된 상위 7개 기관을 살펴보면, 자선모금단체/민간재단(38.2%), 언론기관(38%), 사회복지시설이나 단체(20.3%), 개인(11.8%), 지역사회(4%), 시민단체(1.8%), 중고등학교(1.7%) 순으로 나타났다.

7. 내가 기부한 돈, 어려운 아이들에게 쓰이길 희망

자선적 기부금이 사용되기를 원하는 분야(중복응답)를 살펴보면, 작년과 마찬가지로 소년소녀가장 지원 분야와 결식아동 지원 분야가 작년과 마찬가지로 60% 이상이었으며 장애인복지, 노인복지, 그리고 시설아동에 대한 지원이 모두 40%의 선택으로 나타났다.



기빙코리아 자료 구입 안내

기빙코리아 2002 심포지움 자료집 (기빙인덱스 요약본 및 국제심포지움 발표자료 수록)

기빙인덱스 2001(2001년 기부지수조사) 및 2000(2000년 기부지수조사) Raw Data

구입문의: 아름다운재단 연구출판팀 (give@beautifulfund.org)

전화 02-730-1235, 766-1004



글보기

기빙 인덱스 2002	웹지기	2003-09-28
기빙 인덱스 2001	웹지기	2003-09-28

1

제목

조회



The
Beautiful Foundation

아름다운 재단 ● 사업자등록번호 101-82-07976 이사장 박상중 ● 110-260 서울시 종로구 가회동 16-3 아름다운 집
● 전화: 02-766-1004 / 730-1235 ● 팩스: 02-730-1243 ● ARS: 060-700-1235 ● 개인정보보호정책
Copyright (c) 2003 The Beautiful Foundation All rights reserved. ● E-Mail : give@beautifulfund.org
이 홈페이지는 POSTDATA 포스데이타(주) 에서 제작, 기부해주셨습니다.